

“길 잃은母子에 포근한 쉼터를..”

1 탐방 진각복지재단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달빛동지’



미혼모자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달빛동지 미망원(왼쪽 사진). 달빛동지는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달빛동지 미망원(오른쪽 사진). 달빛동지는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달빛에 의지해 밤길을 걷는 이가 많지 않다. 하지만 캄캄한 사람길이나 가로등 없는 길을 걸을 때면 달빛이 절실해진다. 햇빛처럼 강렬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앞길을 비추주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달빛동지’는 그 이름처럼 은은한 밝음과 온기를 가졌다. 달빛동지에서는 아직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출산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달빛동지에서는 ‘100일 잔치’가 열렸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 4명 중 2명이 100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3월 25일 달빛동지에 도착한 엄마들이 한창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다. 4명의 아이가 함께 일렬로 누워있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난다. 아이들은 각각 3살~4개월 정도 연령이며, 대장, 미소양자, 모자공주, 까만공주 등으로 불리고 있다.

달빛동지가 설립된 것은 지난해 12월이

다. 진각복지재단이 중단 주력 복지사업 중 하나로 채택해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에 집을 마련, 미혼모들을 위한 자체시설을 준비한 것이 현재 2개 층 건물에 미혼모자 47가구 8명이 입주, 생활하고 있다. 달빛동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진각복지재단 직원들과 미망원장의 고민이 컸다. 불교계에서 비슷한 시설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달빛동지는 거의 유일한 불교계 미혼모시설이다.

“사실 이웃종교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수녀님들께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가톨릭의 지원체계, 후원이나 바자 등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현재 달빛동지가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산시설에서 자녀를 낳은 미혼모들 중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어 딱딱한 입장에 놓인 이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의식주에 걸친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달빛동지’와 같은 미혼모시설이 굳이

필요하나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미혼모의 개념을 ‘절없이 떨쳐 아이부터 임신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모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편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달빛동지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총동적일 수 있는 10대가 아니라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여성이다.

최영실(29·가명)씨는 부산에서 아들 지호(생후 4개월·가명)를 낳아 서울에 올라왔다. 최씨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상대방 남자가 모르도록 숨기다가 부산 한 시설에서 아이를 낳았다. 최씨는 상대방 남자로부터 스토킹을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 현재도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씨는 좌절하지 않는다. 타고난 성품도 밝지만 달빛동지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들뜬 마음이다.

“제가 여러 시설의 도움을 받아 보니,

저도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원장님과 계속 상담 중이에요.”

최씨의 말에서 달빛동지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까지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빛동지가 무작정 퍼주기 식의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달빛동지에서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다. 달빛동지는 ‘중간’ 시설이다. 즉, 법적으로 미혼모들이 1년 이상이유가 타당할 경우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음 머뭇지 못하는 시설인 것이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내야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싫었다. 미망원장의 생각도 그렇다.

“현재 체제로는 미혼모들이 느낄 불안감이 너무 큼니다. 출산기관부터 중간관리기관, 자립기관까지 모두 연계돼야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빛동지를 도와줄 수 있는 연계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의료시설과의 연계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혼모들에게 검정고시 또는 자격증 수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수급도 시급하다. 이들에게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격 취득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우리 시설은 아직 출발선에 있습니다. 현재 불교계 내외의 여러 곳과 소통하려 노력 중입니다. 불교계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족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jjang@buddhanews.com



복지현장에 다니다 보면 몸이 몇 개인지 의심스러운 봉사자들이 있다. 심귀남(사진·67)씨도 그런 봉사자 중 한 명이다. 지난해에는 분영 A장소에서 왔는데 다른 복지현장에 가면 또 그를 목격하게 된다. 그는 말이 많지도 않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미도 아니다. 말을 걸면 항상 반가움이 묻어나는 부드러운 얼굴로 웃을 뿐이다. 그야말로 복지현장에서 좋아하는 봉사자의 유형이 바로 심씨다.

“봉사할 곳 있어 행복해요”

심씨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 입이 딱 벌어진다. 그동안 왜 그렇게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한다. 화요일에는 중계노인복지관에서 품 봉사, 수요일에는 종로노인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관에서 격주로 급식봉사를, 목요일에는 동부시립병원 환자 옷 정리 봉사를 한다. 이어 금요일에는 경희의료원 환관 안내 봉사, 주말은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 급식봉사를 진행한다. 월요일에는 쉬는 날이 없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는 서계 보현의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쉬는 날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가 봉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몸이 성할 때 부지런히 다녀야지요.”

심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 조계사에 다니면서 부터다. 무



요즘 봉사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중계노인복지관에서 침뽀 봉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가끔 몸이 좋아졌다고 고마워 하니, 그게 또 너무 부끄럽고 좋은데 영등포·서계 보현의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다. 보현의집에서 반찬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는 것도, 그들이 ‘고맙다’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몽클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봉사활동 ‘금강경’ 독송으로 삶의 고비 극복

하게 되는 것도 봉사를 하기 가능한 것임을 심씨도 잘 알고 있다.

“가끔 젊은 시절에 ‘복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 복지시설도 제대로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싶어요. 하지만 저는 현재에 만족합니다. 부지런히 갈 곳이 있으니 행복해요.”

이렇게 바빠도 그는 거의 매일 조계사에서 기도를 한다. 절에 못 나오게 되더라도 하루 1번 <금강경> 독송은 빼놓지 않는다. 그것이 봉사자로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 심씨는 굳게 믿고 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누구든 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교육도 받고 하면 봉사가 그야말로 즐거워집니다. 봉사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강진 기자

조계사에서 청소, 공양 준비 등을 돕는 봉사를 곧바로 시작했으니 말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생기고 부터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봉사자 기본교육부터 교육은 모두 이수했다.

“절에 다니면서 불자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도 물질 보다는 몸으로 하는 보시가 중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봉사가 이렇게 삶을 온통 채우고 있다. 그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척 속스러워하며 “같이 봉사다니는 사람들이 잘해주고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대꾸한다.

“장애인 행복 만들기 함께해요”

보덕학회,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1억원 기탁

재단법인 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가 3월 26일 경기도 이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모건)을 방문, 자비복지타운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재활프로그

램실 건립에 써 달라며 건립기부금 1억원을 기부했다. 재활프로그램실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내 850㎡의 건축면적에 지하1층, 지상1층의 규

모로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실, 보호자업장, 카페 등으로 설계했으며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총 건립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라 자비복지타운에서는 재원마련에 고민이 많았는데 보덕학회에서 때마침 큰 힘을 보탠 것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류홍우 이사장은 “오늘 전달한 기부금이 종자가 되어 장애인재활프로그램실을 건립하는 데 큰 결실을 맺길 바라며 많은 불자님들께서 함께

장애인지원사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원장 모건 스님도 “오늘 받은 후원금으로 좋은 건물을 지어 재활프로그램실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단법인 보덕학회는 자비·보살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학회로, 불법 흥포에 뜻을 두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 포교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 단체다.

김강진 기자

(주) 불교조형미술 대산 부처님 오신날 초대형 연꽃! 축

설치예:
도량내, 도상공간
연꽃, 저수지, 강
차장(발천기발제)
건물옥상, 난간, 기타

제작물품:
아기부처님(5형)
석가탑,
연꽃, 향오리, 연일,
강고탑,
기타 캐릭터

기타:
벽화, 단청
조명용 형광(액릭그라스)

귀의 삼보 아홉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의 (주) 불교조형미술 대산에서는 부처님 오심을 향축하는 **조립식 대형연꽃** (실용신안등록 제0392945호) 을 주품목으로 향축탑, 차랑장엄들을 제작 설치하는 전문회사입니다.

풍은날, 행복만날,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하는 대형 장엄연꽃으로 부처님 도량을 화엄만다라의 세계로 연출하십시오.

아름답고 화려한 조명으로 만들어진 장엄연꽃은 부처님 오심을 더욱 환희롭게 할 것입니다.

연꽃, 봉오리(25W~30W 조명)
0.8m~1.0m

연일(테두리 논네온조명)
지름 1.6m~2.2m

연꽃, 봉오리(25W~30W 조명)
0.8m~1.0m

연일(테두리 논네온조명)
지름 1.6m~2.2m

연꽃, 봉오리(25W~30W 조명)
0.8m~1.0m

연일(테두리 논네온조명)
지름 1.6m~2.2m

•주요실적 : 수원, 속초, 홍천, 원주, 군위, 구미, 대구, 영천, 포항, 청도, 마산, 창원, 거제, 문곡위원회, 치악산 구룡사, 팔공산 동화사, 죽림정사, 금굴사, 부산 범룡사, 구미 봉축사, 대동사, 포항 죽림사, 대구 무량사, 정법사, 오적사, 보현사, 구화사, 대구불교대학, 마산 백운사, 칠곡 망월사, 뉴질랜드 남극정사, 마산시청, 대구동구청, 창원유등제, 청도유등제

(주) 불교조형미술 대산 (053)764-2296 E-mail jang8458@yahoo.co.kr (비번: 8122296)
7706-06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0-4번지 011-812-2296

웹하드 ds8458 (비번: j2296)